

# 순창 훈몽재 활성화 방안 논의

### 학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필암서원·훈몽재 연계 국비 예산 지원 등 주제로 의견 나뉨

순창군은 22일 훈몽재 자연당에서 국내 유학사상과 서원관련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훈몽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황숙주 순창군수, 김충호 훈몽재 산장,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유학중앙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훈몽재 운영 활성화와 어암관 건립사업 및 필암서원과 연계 사업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충호 산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열이 서려 있는 훈몽재는 국내는 물론 중국 대학생과 유학생들도 매년 방문해 강학을 들

는 등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유학사상의 산실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군비 40억원을 투입해 어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배용 이사장님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2019년에 등재된 필암서원은 하서 선생을 매개로 훈몽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필암서원이 국비 예산지원으로 운영 관리되는 만큼 훈몽재와 연계해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배용 이사장과 이기동 명예

교수는 "어암관 건립사업을 통해 훈몽재 외연이 확장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유학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향후 훈몽재와 필암서원이 활발한 상호 교류와 강학을 통해 서로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다양한 방안의 관심과 지원이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의견을 통해 필암서원과 연계해 훈몽재의 강화 기능을 더욱 진흥시키고, 향후 어암관 건립 후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재능나눔 활동 참여단체 및 법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 농촌에 재능나눔 해주실거죠?

### 남원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 참여단체·법인 모집... 31일까지 신청

남원시는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재능 나눔 활동 참여단체 및 법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은 봉사단체, 농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 단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농촌마을에 나누며 농촌마을 지역활성화, 주민건강·문화진흥, 마을환경 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촌마을 활력 창출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문화진흥, 주거 및 마을환경 개선, 주민교육 및 복지 증진 4개 분야로,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30백만원 5개 단체를 지원해 단체별 농촌마을에 재능을 나누는 바 있으며 농촌마을 환경·문화·복지·주거 분야 개선에 기여한 바 있으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청 농촌활력과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팀으로 전화(063-620-6363) 또는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진삼체 농촌활력과장은 "앞으로 시에서는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든든한 버팀목'

### 농가부담 덜고 경영안정 도움... 올해 11억4000만원 예산 확보

임실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률 20% 중 10%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2018년에는 자부담률에 대한 지원을 20% 중 5%로 했으나, 2019년부터는 10%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18년 1,333건에서 2020년에는 2,291건으로 72%나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각종 자연재해가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1,108개 농가가 약 28억의 보험료를 수령,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

군은 올해도 11억4000만원(국비 633백만원, 도비 190백만원, 군비 3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연재해로부터 관내 농가에 보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 영위와 소득 보전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품목 신청 기간별로 농업경영체등록증 혹은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해로부터 부

담을 덜 수 있도록 품목 가입 시기별로 홍보물 배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군은 농촌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무인헬기와 드론을 통해 농약 살포를 대신하고 있다.

비용도 군에서 40%, 농협에서 20%, 농가가 40%를 부담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덕을 보게 됐다"며 "올해도 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신용균 순창군의장,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동참

순창군의회 신용균 의장이 최근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미안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안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신용균 의장은 이번 챌린지에서 "같은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마에도 더 이상의 희생과 눈물이 없어야 한다"며 "미안마 국민의 민



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지명을 받은 신용균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을 지목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남원시, 확대 간부회의 개최

남원시는 22일 2층 회의실에서 본청 간부들과 23개 읍면동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간부들과 23개 읍면동장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보고를 받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남원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감소 폭이 크지 않은 양상이지만, 인구문제가 곧 시의 존립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 분석요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교육환경개선 등 전출요인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일은 사람(인구)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정주인구 8만 유지·인구증가를 위한 숨은 인구찾기 등 범 시민운동 전개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으로 관내 단 1명이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확보와 공모사업 대응에서 최근 공모사업 특성상 단독추진보다 연계돼 처리되는 점을 고려해 시야를 넓혀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고, 본격화되는 영농시기에는 농기계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며, 읍면동장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에 이 시장은 이번 주에 랜선시장설명회가 마무리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꼭 대면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요구사항과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자체가 소통행정의 첫걸음인 만큼, 시장설명회를 원활하게 마무리 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음식전 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

남원시에서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서는 3월 26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사업 참여업소 약 50개소를 모집해 비용의 70%(최대 350만원)를 지원하며, 자격은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 중 위생등급제, 모범업소 및 안심식당을 우선 선정하고 테이블 여건에 따라 필수로 설치해야한다.

다만 입식테이블 기 설치업소나 소주방·호프 등 주점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3월 26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620-7931~7934)이나 한국의 식품중앙회 남원시지부(625-4442)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추진

남원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내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1회에 걸쳐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현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로 올해에 한해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은 이번 회차에 한해서만 시에서 진행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원인가가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며, 폐 슬레이트 불법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